

감춤과 드러남의 역설

김석모 (미술사학자, 서울미술관장)

창작은 먼저 미술을 규정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창작자가 자기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마침표 찍는 결론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는 과정이다.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끝나지 않는다.

정병현의 작업은 속박과 해방을 감춤과 드러냄으로 환치한 미학적 절충이다. 창작 동기가 그렇고 작업 방식과 작품 전개도 추이가 그렇다. 시각적 보임새는 꽤나 복잡적이지만 과정은 의외로 단순하다. 종이 위에 색이 칠해지고 형상이 그려지면 하나의 화면이 준비된다. 그 위에 다른 한 겹의 종이가 접합된다. 새로운 화면에 색이 칠해지고 형상이 그려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가장 외부로 드러난 표면은 짙고 어두운 단일 색으로 가려진다. 겹겹의 화면은 견고한 피부가 되고 문신바늘의 빠른 진동으로 종이의 결과 울을 뜯어낸다. 무수한 직선들과 명료한 기하학적 형태가 드러난다.

화면에 야기된 약간의 착시는 의도와 무관한 결과이다. 오히려 화면 위 상존하는 두 종류의 선(線)적인 요소에 무게가 실린다. 하나는 보여주는 선, 다른 하나는 감추는 선이다. 드러내는 선은 문신바늘이 지나간 흔적, 겹이 손상되자 속이 드러나 만들어진 선이다. 다른 선은 손상되지 않은, 문신바늘의 진동의 피해가 보존된 표면의 선이다. 두 가지 다른 성질의 선은 화면 위에 공존하며 미학적 긴장감을 자극한다. 두 선은 병렬적인 것 같지만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 하나는 표층, 겹, 감춤에 다른 하나는 심층, 안, 속, 드러냄에 속해 있다. 역설적이게도 내적 선은 표면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오히려 감춰진 표면의 선이 심연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다.

감춤과 드러냄은 실존적 갈등의 해소이자 자기해방의 탈출구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안다, 결국에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혹은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을. 정병현은 드러내기 위해 가루 난 기억을 색으로 섞어 형태로 위장한 후 한지로 덮었다. 한지는 감추지 않는다. 품는다. 그것은 포용의 품이다. 미술가의 실존적 자아는 문신 바늘의 진동을 타고 한지의 표면을 두드리지만 그것은 파괴되지 않는다. 문신 바늘만 무더질 뿐 한지는 도리어 한결 더 부드러운 색을 끌어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정병현의 화면은 점차 미학적으로 승화되어 간다. 2023. 05